



にほん しゅっさん かん ぶんか
日本の出産に関する文化

일본의 출산에 관한 문화

にんしんちゆう
妊娠中

임신중

ふくたい
<腹帯>

<복대>

にほん にんしん しゅう いぬ ひ いぬ
日本では妊娠 16-19週ごろの戌の日に、「戌のように
あんざん
安産であるように」というねがいをこめて、さらしをおなか
ま しゅうかん
に巻く習慣があります。おなかを暖めるという意味で
しょう ひと おお ささ しょう
使用する人や、大きくなったおなかを支えるために使用する
ひと
人などさまざまです。また、まったく使用しない人もい
ます。

일본에서는 임신 16-19 주 즈음의 이누노히(개의 날)라고 하는 날에, '개처럼 순산하기를'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사라시(흰 천)를 배에 마는 관습이 있습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려는 의미에서 배에 천을 마는 사람, 커진 배를 지탱하기 위해서 배에 천을 마는 사람 등 가지가지입니다. 반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しゅっさん ごと
出産後

출산후

お
<へその緒>

<탯줄>

ま まも い つた お
魔よけやお守りになるという言い伝えがあり、へその緒を
と しゅうかん かんそう きり はこ
取っておく習慣があります。乾燥させてから桐の箱など
い ほかん さいきん かんせん りゆう
に入れて保管しておきます。最近では感染の理由から、
お わた びょういん ふ
へその緒を渡さない病院も増えてきました。

나쁜 기를 쫓아내는 등 부적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옛날 부터 전해져 내려 오면서, 자른 탯줄을 남겨두는 관습이 있습니다. 자른 탯줄은 건조시킨후 오동나무 상자 등에 넣어서 보관해 둡니다. 최근에는 감염의 이유로 탯줄을 주지 않는 병원도 늘고 있습니다.

しちや <お七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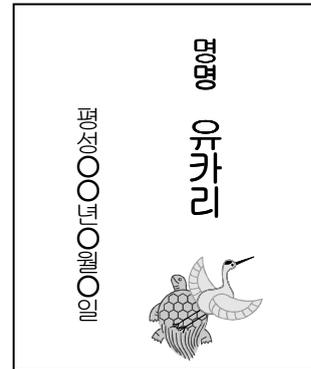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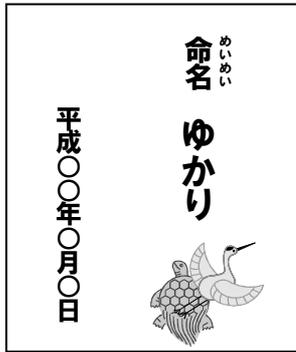
せいご かめ めいめいしき げんざい しはん
生後7日目に命名式をすることです。現在では、市販の

めいめいしょ はんし ちゅうおう めいめい なまえ か
命名書や半紙の中央に命名〇〇〇と名前を書き、その

ひだりわき せいねんがっぴ か かみだな かざ かべ は
左脇に生年月日を書いて神棚に飾ったり壁に貼ったり

します。赤ちゃんの名前は、お七夜の前に決めることが

おお
多いです。



<오시치야>

생후 7 일째에 이름을 짓는 의식을 말합니다. 요즘은 시판하는 명명서나 일본종이의 중앙에 명명 〇〇〇 라고 이름을 적고, 그 왼쪽 옆에 생년월일을 적어 신을 모셔두는 선반에 장식하거나 벽에 붙입니다. 아기의 이름은 오시치야 전에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うちいわい <内祝>

にほん しゅっさん いわ いただ たい
日本では、出産のお祝いとして頂いたものに対して、

かえ しゅうかん うちいわい
お返しをする習慣があります。これを「内祝」といい

ます。お返しのものには、内祝というのし紙に、

う なまえ か は せいご かげつ
生まれたこどもの名前を書いて貼ります。生後1ヶ月まで

かえ いっばんてき
にお返しするのが一般的です。

<우치이와이>

일본에서는 출산 축하로 받은 선물에 대해 답례를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치이와이' 라고 합니다. 답례품에는 우치이와이 라는 종이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적어서 붙입니다. 생후 한달 이내로 답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みやまい <お宮参り>

せいご かげつ たんじょう いわ びょうき けんこう
生後1ヶ月の誕生を祝い、また病気をせず健康であるこ

と(無病息災という)を願うために行きます。着物などの

せいそう じんじゃ で ちちかた そぼ あか
正装をして神社に出かけます。父方の祖母が赤ちゃんを

だ みやまい いっばんてき
抱くのがお宮参りの一般的なスタイル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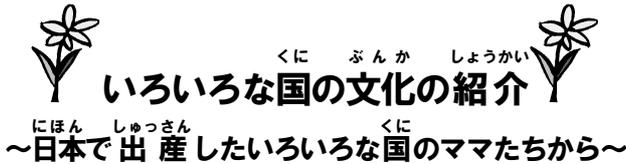
<오미야마이리>

생후 한달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아픈 곳 없이 건강하기(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행합니다. 기모노 등 정장을 하고 신사에 갑니다. 친할머니가 아기를 안는 것이 오미야마이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くそ お食い始め>

せいご におち におち におとな おんな しょくじ
生後100日~120日ごろに、大人と同じような食事を
あか ようい におとな た
赤ちゃんにも用意します。(赤ちゃんが食べられるような
スープなども用意します) じっさい た
実際には食べるまねだけを
するのですが、これは いっしょうた もの こま ねが
一生食べ物に困らないように願う
ために行います。



<インドネシア>

しゅうきょうじょう りゆう ぶたにく た ひと おお
宗教上の理由で、豚肉を食べられない人が多い
です。あくま あか まも い いみ あか
悪魔から赤ちゃんを守ると言う意味で、赤ちゃんの
ベッドに、にんにく、かがみ お ばあい
鏡などを置く場合もあります。

<パキスタ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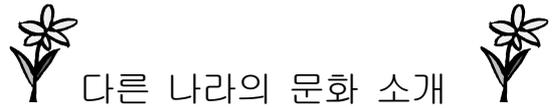
しゅうきょうじょう りゆう じょせい いし じょさんし
宗教上の理由で、女性の医師や助産師からしかケア
を受けられないことがあります。また、にんしんちゅう
妊娠中であつても、ファースティング(しょくじ せいげん おこな
食事などを制限すること)を行う
ひと ぶんべん まえ いんぶ け そ
人もいます。分娩の前に、陰部の毛をすべて剃ることも
あります。

<イタリア>

う あか つ いっしょ がいしゅつ
生まれてすぐの赤ちゃんを連れて、一緒に外出すること
が多いです。そのほうが健康的と考えられているからです。
さとがえ ぶんべん ひと
イタリアでは里帰り分娩をする人はほとんどいません。
じっか かえ ふうふ なか わる
それは、実家に帰ったら、夫婦の仲が悪くなってしまった
おも ばあい
と思われてしまう場合もあるからです。

<오쿠이조메>

생후 100 일~120 일경에 어른과 똑같은 식사를
아기용으로 준비합니다. (아기가 먹을 수 있는 국 같은
것도 준비합니다) 실제로는 먹는 시늉만 합니다만, 이걸
평생 먹을 것에 고생하지 않도록 바라며 하는
의식입니다.



~일본에서 출산한 다른 나라 엄마들의 메시지~

<인도네시아>

종교상의 이유로 돼지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마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는 의미로 아기 침대에 마늘,
거울을 놓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키스탄>

종교상의 이유로 여자 의사와 조산사에게만 케어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이라도
단식(식사 등을 제한하는 것)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만 전에 음부의 털을 전부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태어난 지 얼마안되는 아기를 데리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는 편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친정에 가서 분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친정에 가면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고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